

## 개심술후 심근손상 환자에서 Cardiac Troponin T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태이·정태은·이동협·이정철·한승세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95년 12월부터 1996년 6월까지 개심술을 시행한 환자들 중 소아를 제외한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심근 특이효소인 Troponin T(이하 TnT)의 수치가 개심술 전후에 심근손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용한지를 조사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술전과 수술직후 및 술후 1, 2, 3, 7일의 혈청 TnT를 측정하여 CPK, CK-MB와 비교분석하였다.

수술은 저체온법과 막성산화기를 사용하였으며, 심방중격결손중의 폐쇄를 2례, 승모판 폐쇄부전에 의한 승모판 판막치환술을 3례, 대동맥 폐쇄부전으로 대동맥 판막치환술을 1례, 발살바동의 폐쇄를 1례, 우관동맥 우심실루의 폐쇄를 2례에서 시행하였으며, 안정성 협심증 4례, 급성 심근경색 2례와 심근경색후 협심증 2례는 관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는 수술 전후의 임상 증상과 심전도에 근거하여 술후 심근손상이 의심되는 군(실험군, n=7)과 대조군(n=10)으로 나누었다. 환자연령은 실험군( $42.7 \pm 23.0$ 세)과 대조군( $45.0 \pm 19.6$ 세)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체외순환시간(실험군:대조군  $146.3 \pm 40.3$  min :  $146.1 \pm 64.0$  min)이나 대동맥차단시간(실험군:대조군  $92.3 \pm 25.6$  min :  $91.1 \pm 44.7$  min)도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측정된 CPK, CK-MB와 TnT는 술전은 모두 정상이었으나, 수술직후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 < 0.05$ ) 그러나 술후 1일 이후의 CPK, CK-MB는 각 군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TnT는 술후 1, 2, 3, 7일에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나타났다( $p < 0.05$ ).

TnT는 술후 심근손상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타남으로서 체외순환술로 개심술을 시행한 환자에 있어서 술후 심근손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CPK와 CK-MB보다 TnT가 더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